

7/14(목) 잠언 16-18장 감찰하시는 여호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16:2)”

잠언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를 반복하며
그들이 맞게 될 <보응 원리>를 제시합니다.
지혜자는 생명에, 미련한 자는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응의 원리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원리입니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맞이할 결국은 분명하고 명확하지만,
보응을 위한 선악과 인과, 분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불공정하며 인간의 분별력은 유한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판단하신다는 사실은
참된 보응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입니다.
당장의 형세나 판결, 실제 느끼는 효능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며 <최종 판결>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요청하십니다.
(16:5, 히. 토에바, 가증스러운, 역겨운/ 히. 체다카, 미쉬파트, 사5:1-7).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날 수 있고(16:6, 호4:1, 미6:8),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자(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이
자비하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점검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❶ 내 삶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교만> 부분이 있습니까?
- ❷ 내 삶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정의와 공의> 부분이 있습니까?

시작기도 + 통독 잠언 16-18장